



‘대체불가 중견수’ KIA 김호령, 인생 시즌 이어간다

11홈런·46타점 커리어하이 질주…생애 첫 FA 가치 ‘쑥’
잠실 7연패 끊은 결승포·20홈런 가시권…공수 겸비 활약

KIA 타이거즈 외야수 김호령이 데뷔 12년 만에 최고의 시즌을 써 내려가고 있다. ‘수비형 외야수’라는 꼬리표를 떼고 공수를 겸비한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한 것. 그는 생애 첫 FA 자격 획득을 앞두고 자신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는 중이다.

올 시즌 김호령의 활약은 눈부시다. 30일 경기 전 기준 77경기에 출전해 297타수 85안타 11홈런 46타점 타율 0.286 OPS(출루율+장타율) 0.791을 기록 중이다.

이미 지난 2016시즌 세웠던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8개)과 타점(41점)을 넘어섰다. 현재 페이스라면 지난해 작성한 개인 최고 타율(0.283)까지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한 그는 이제 20홈런까지 바라볼 기세다.

김호령은 지난 28일 잠실 두산베어스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그는 6타수 3안타 1홈런 5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12-1 대승을 이끌었다. 5회 0

-0 균형을 깨는 선제 투런포를 터뜨린 데 이어 6회에는 1사 만루에서 주자 세 명을 모두 불러들이는 싹쓸이 2루타를 폭발시켰다. 3루타만 보았다면 사 이클링 히트까지 달성할 수 있었을 만큼 팬타를 휘둘렀다. 개인 한 경기 최다 타점 타이 기록을 세운 김호령의 활약 속에 KIA는 잠실구장 7연패의 사슬도 끊어냈다.

5월 다소 부진을 겪었던 김호령은 6월 들어 다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 타율 0.304를 기록 중이며 최근 19경기에서는 3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안타를 때려냈다. 상위 타순에 자리 잡으며 출루와 장타를 동시에 책임지는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의 김호령이 있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2015년 KIA 유니폼을 입은 그는 이듬해인 2016년 124경기에 출전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당시 타율 0.267을 기록하며 주전 중견수로 활약했지만 이후 타격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군 복무를 마친 뒤에도 기대했던 성장을 이

루지 못했고, 주전 경쟁에서도 번번이 밀려났다. 전환점은 지난해였다. 이범호 감독의 조인 속에 자신만의 타격 메커니즘을 완성했고, 꾸준한 출전 기회를 발판 삼아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그 결실이 올 시즌 폭발하며 불박이 중견수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여전히 최고의 무기는 수비다. ‘호령존’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넓은 수비 범위와 정확한 타구 판단 능력은 리그 정상급으로 평가받는다. 안타성 타구를 여러 차례 견어내며 투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강한 어깨를 앞세운 송구 능력까지 갖춰 KIA 외야의 중심을 책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타 생산 능력과 해결 능력, 출루 능력까지 끌어올리며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체력 부담이 큰 중견수 포지션을 거의 매 경기 소화하면서도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올 시즌이 끝나면 김호령은 생애 첫 FA 시장이 나온다. 예비 FA 외야수 가운데서도 공수 겸장 자원으로 손꼽히는 만큼 관심도 적지 않다. 특히 시즌 후반 현재의 타격감을 유지하며 커리어 하이 경신을 이어간다면, 생애 첫 FA를 앞둔 김호령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U15, 광주축구협회장기 ‘제패’

WK유나이티드와 결승전서 3-1 승…2년 만 우승컵

프로축구 광주FC U15가 광주시축구협회장기 정상에 오르며 지역 최강 유소년 팀의 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광주 U15는 지난 28일 광주 보라매구장에서 열린 제9회 광주시축구협회장기 결승전에서 광주 WK유나이티드 U15를 3-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광주는 2024년 이후 2년 만에 대회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광주는 경기 시작과 함께 주도권을 장악했다. 전반 6분 이성현(2년)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했고, 전반 32분 하진서(2년)가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승기를 잡았다.

후반 들어서도 공세는 이어졌다. 후반 12분 양도훈(2년)이 쐐기골을 터뜨리며 3-0까지 달아났고, 이후 한 차례 실점을 허용했지만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리드를 지켜 3-1 승리를 완성했다.

광주는 이번 우승과 함께 개인상도 휩쓸었다. 임준형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고, 양도훈은 최우수선수상(MVP), 이호승은 수비상, 이종혁은 골키퍼상을 각각 받으며 광주 유소년 시스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임준형 감독은 “무더운 날씨에도 근성과 투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이번 우승의 좋은 기운을 이어 리그와 다가오는 하계 대회에서도 광주 유소년의 지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9회 광주시축구협회장기’ 우승을 차지한 광주FC U15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메이저 우승 유해란, 세계 랭킹 7위로 상승

준우승 윤이나 17위·시즌 3승 김민솔 15위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여자골프 세계랭킹 톱 10에 진입했다.

유해란은 30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평균 6.04점을 받아 지난해 12위에서 5계단 오른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해란은 한국시간 29일 끝난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안았다.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윤이나는 평균 3.31점으로 지난해보다 22계단이 오른 17위에 자리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맥콜·모나 오픈에서 우승, 시즌 3승을 달성한 김민솔은 세계랭킹을 15위로 끌어 올렸다.



거대한 우승 트로피 들고 밝게 웃는 유해란. 연합뉴스

또한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어스몬다민컵에서 우승한 박현경은 지난해보다 14계단이 오른 66위가 됐다.

넬리 코르다(미국)와 지노 티피온(태국), 김효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3위를 지켰다.



지난해 열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남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전남·광주장애인체육, 단복으로 ‘통합시 시대’ 시동

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오는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대표 선수단 단복을 공동 제작·구매했다. 이는 양 기관의 통합을 앞두고 추진되는 첫 공동사업으로, 성공적인 조직 통합을 위한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입찰과 계약, 디자인 선정, 납품 일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5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6월 공동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으며, 30일 양 기관이 함께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대표 선수단 단복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

양 기관 첫 공동사업 추진…예산 절감·행정 효율 기대
전국장애인체전서 같은 디자인 착용…비전·연대 상징

이번 공동구매는 동일한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적용한 통합 발주 방식으로 진행돼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구매 규모를 확대해 경쟁력을 높였을 뿐 아니라 계약 절차를 일원화하면서 행정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거뒀다.

무엇보다 양 기관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조직 간 신뢰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서로 다른 조직 문화와 행정 환경 속에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면서 통합 이후 필요한 협

약 기반을 자연스럽게 다졌다는 평가다.

오는 9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남과 광주 선수단은 각 시·도를 대표해 출전하지만 같은 디자인과 색상의 단복을 착용한다. 이는 단순한 복장의 통일을 넘어 통합 장애인체육회의 비전과 협력 의지를 전국 무대에서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공동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생활체육 교류전과 선수 지원, 대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곽준성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통합의 성공은 제도 변화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단복 공동구매를 시작으로 장애인체육이 전남·광주 통합의 모범 사례이자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성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양 기관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이번 사업은 행정 효율성과 예산 절감은 물론 조직 간 신뢰를 쌓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선수 중심의 정책과 현장 중심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장애인체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체육고등학교 여동부 김체량(3년)이 ‘제40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체량은 최근 강원도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고등부 최중량급(+86kg)에서 인상과 용상, 합계를 모두 석권하며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체량은 인상 109kg, 용상 154kg, 합계 263kg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용상 154kg을 성공시키며 한국학생(18세 이하) 신기록과 한국주니어(20세 이하) 신기록을 동시에 작성했고, 대회 최우수선수(MVP)에도

광주체고 김체량, 전국여자역도선수권 ‘3관왕’ 용상 한국 학생·주니어 신기록…대회 MVP 이다른 금 1·은 1 추가…전국체전 활약 기대

선정되는 경 gesta를 맞았다.

이다른(2년)도 여자 고등부 86kg급에서 인상 1위, 용상 3위, 합계 2위를 기록하며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광주체고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엄길훈 광주체고 교장은 “김체량과 이다른이 꾸준한 훈련의 결실을 전국 무대에서 보여줬다”며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학생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